

	보도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미래창조 금융• 따뜻한 금융• 튼튼한 금융
	7.22(수) 08:00부터 보도 가능	

작성부서	(금융위원회) 금융정책과, 은행과, 중소기업과 (기획재정부) 자금시장과 (국토교통부) 주택금융과 (통계청) 복지통계과 (금융감독원) 은행감독국, 상호여전감독국, 상호금융검사국, 저축은행감독국 (한국은행) 금융안정국 (주택금융공사) 정책모기지부, 주택보증부, 유동화증권부			
책임자	권대영 과장(2156-9710) 이윤수 과장(2156-9810) 윤영은 과장(2156-9850)	담당자	양병권 사무관(2156-9718) 장원석 사무관(2156-9714) 이인욱 사무관(2156-9812) 박정원 사무관(2156-9856) 김기환 사무관(2156-9859)	
	김진명 과장(044-215-2750)		윤지희 사무관(044-215-2754)	
	김홍목 과장(044-201-3337)		윤성업 사무관(044-201-3338)	
	서운주 과장(042-481-2359)		박유권 사무관(042-481-2594)	
	류찬우 국장(3145-8020)		이영로 팀 장(3145-8040)	
	박상춘 국장(3145-7550)		박상원 팀 장(3145-8045)	
	정성웅 국장(3145-8160)		정용걸 팀 장(3145-7447)	
	장병용 국장(3145-6770)		윤대광 부국장(3145-8763)	
	조정환 국장(750-6831)		김민수 팀 장(3145-6773)	
	정하원 부장(051-663-8271)		김옥중 팀 장(750-6834)	
배포일	2015.7.21(화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2매

제 목 :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-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발표 ... 「가계소득 증대」, 「서민·취약계층 지원 강화」와 함께 「**가계부채 관리방안**」 종합 추진
- 「가계부채 관리방안」은 “**빚 갚아나가는 시스템 구축**”에 중점
 - ‘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분할상환’ 정착으로 대출구조 개선 가속화
 - ‘선진형 심사체계 구축’ ... 담보 위주 심사 관행 → 상환능력 중심 전환

□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「가계부채 관리 협의체*」에서 “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”을 마련

* ‘15.3.20~7.17일까지 총 13차례 회의를 개최

-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「가계소득 증대」, 「서민·취약계층 지원 강화」와 함께 「가계부채 관리방안」을 종합적으로 추진
 -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분할상환 등 구조개선 및 관행 정착, 선진형 상환능력심사 체계 구축 등 시스템적·단계적 접근 방식으로
 - 인위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마련
 - (1) 첫째, 대출구조를 “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”으로 개선하여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
 - (2) 둘째, 금융회사 스스로 “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”하여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
 - (3) 셋째,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“제2금융권 비 주택대출”이 과도하게 증가(풍선효과)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
 - (4) 넷째, “금융회사·주택금융공사·가계의 대응력을 제고”하는 한편, “관계기관 합동으로 모니터링”을 대폭 강화
 - 금번에 마련한 대책은 세부방안별 필요 조치, 금융회사 전산 개발 등 내부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되,
 - 가계부채 상시점검반 운영, 구조개선 목표 강화, 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방안 등 금년중 추진 가능한 대책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
- ※ 자세한 내용은 별첨1.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참고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
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

넓게 듣겠습니다
바르게 알리겠습니다